

우여곡절 ‘문화전당특별법’ 통과 野 협상력 돋보였다

우윤근·주승용 의원 등 정치권·지역사회 합심

정부·여당 설득끝 최대 현안 관철 18개월만에 ‘햇빛’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을 국가 기관화하고 정부 재정지원 의무화를 명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개정안이 18개월 논의 끝에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긴 여정 동안 새정치민주연합 박해자 의원을 비롯한 지역정치인과 지역사회가 힘을 합쳤고 새로 탄생한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 특별법 개정안이 빛을 보게 됐다.

특히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우윤근 원내대표와 주승용 수석 최고위원 등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특별법 개정안은 먼저 통과시키면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협상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해 지역현안 법안을 관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별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27일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부터다. 이때 정부안은 국가 기관 소속으로 돼있던 문화전당 운영 전부를 법안에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에 광주를 중심으로 국가 지원을 배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고 박해자 의원이 문화전당이 국가 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 재정지원 의무화를 명시한 개정안을 제출, 논의의 중심이 국회로 옮겨 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그해 2월14일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 상정됐으나 10개월 후인 12월4일에야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등 정부와 광주시,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역사회와 지역정치권, 특히 박 의원의 끈질긴 설득 끝에 지난해 12월17일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정부와 여·야가 만장일치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안과 박 의원 안을 병합 심리할 끝에 상임위 대안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그러나 박 의원 요구 사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합의를 뒤집고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고 법안은 2월 국회까지 이월됐다. 급기야 여당과 정부는 지난달 2일 당정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여야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은 ‘광주법’이라고 지역색까지 자극하며 처리를 반대했다. 이때까지 박해자 의원이 외롭게 여권에 맞서고 있었으며 막 지도부에 입성한 주승용 최고위원이 개정안의 처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 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 처리 일정

2013.9.27	법안화 운영 등 정부안 국회제출 박해자 의원 정부재정지원 의무화 대표 발의
2014.1.2	2.14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12.17	교문위 법안소위 만장일치 개정안 통과
2015.2.2	여당·정부, 개정안 재검토 결정
2.23	문재인, 당 최고위서 개정안 통과 공식 당부
3.2	여야, 최종 합의안
3.3	국회 통과

협상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23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그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당부하면서부터다. 이에 야당 원내지도부는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

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협상에 적극 임했다.

그리고 다음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에서 ‘지원한다’로 수정하고 ▲국가 소속 기간의 기한을 5년으로 하는 한편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액의 1%를 문화도시조성 사업에 지원하는 조항 중 ‘1%’를 삭제하는 수준에서 절충을 이루고 다음날 최종 협상을 벌였다.

문구 협상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5년 후 곧바로 위탁하자고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은 평가를 거치자고 맞서면서 진전이 이어졌고 특히 여당이 관광산업진흥법 개정안 등과 ‘덜’을 요구, 최종 합의가 지연됐다.

이후에도 여야는 물밑 협상을 지속, 지난 2일 밤 5년 후 평가 과정을 거쳐 법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안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된 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왼쪽)가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손 든 문재인

친노인사 인선 반발 주승용 최고 ‘탕평’ 수용

신임 조직부총장에 비노계 김관영 의원 내정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당내 갈등의 원인인 된 신임 조직부총장 자리에 김한길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관영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동안 친노(친노무현)계와 특별히 각을 세우오지는 않았지만 김한길 전 대표 당시 수석대변인과 비서실장을 역임한 비노계 의원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표가 조직부총장 인선을 두고 오랜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국 탕평 인사 기조를

부각시키기로 한 셈이다.

특히 최근 김영협 수석사무부총장 인선을 두고 비노계 일각에서 “말뚝인 탕평”이라는 비판도 나왔던 만큼, 조직부총장을 비노계에 맡겨 논란을 일소하겠다는 의지로 담긴 것으로 보인다.

조직부총장은 조직 실무를 총괄하고 공천심사위원회 등이 열리는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당내 요직이다. 때문에 최근에도 조직부총장 인선을 두고 당내에서 몇 차례나 논란이 이어

졌으며, 지도부는 출범 후 한달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자리를 비워뒀다.

예초 문 대표는 친노 인사로 분류되는 한병도 전 의원을 임명할 생각이었으나 당내 비노 인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김경협 의원의 임명에 이어 한 전 의원 임명을 고려하자 주승용 수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등 공식 행사에 불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이 갈등을 겪자 한 전 의원은 지난 주말께 문 대표에게 고사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 대표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원외 인사들을 후보군에 넣고 여러모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문 대표는 최근 김 의원에게 의사를 타진했으며, 김 의원은 고민 끝에 이날 오후 최종 수락 의사를 지도부에 전달했다. 당은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인선을 의결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화전당특별법은 광주법”

與 일부 의원들 의총서 비난

이정현 나서 개정안 통과 역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별법) 개정안이 3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이 법안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편협된 인식은 향후 정부 예산 지원 과정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률) 협상 결과를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오히려 아특별법 개정안 처리 합의를 놓고 반발이 제기됐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 결과를 보고하는 도중 권성동 의원이 끼어들어 아문법 협상 과정을 질의했고, 국회 안전행정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법 협상과 관련해 “야당 간사가 4월 국회에서 또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여진 비공의 의총에서는 아특별법 개정안 협상을 놓고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가 지역구인 정수성 의원을 비롯해 부산이 지역구인 나성린·이현승 의원, 강원도 평창이 지역구인 염동열 의원 등이 “지자체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면 지역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이 참여정부 때 국가 사업으로 시작됐고 명백히 국가 소속 기관임에도 지역기관 취급하고 있다는 편협된 인식을 보인 것이다.

김부성 대표까지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의 아특별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현재의 법안 자체만 놓고 볼 때에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법이나 2006년도에 우리가 다 참여해서 통과시켰다는 그런 문제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순천·곡성이 지역구인 이정현 의원만이 “광주가 그 동안 굉장히 소외돼 왔다”며 아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계수영선수권 선수촌 부지

광주시의회, 첨단 3지구 제동

광주시가 선정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예정지 중 첨단 3지구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선수촌 예정지가 신도심 개발이 아닌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회 조영복 의장 등 20명의 의원들은 3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재생과 지역 균형발전의 방향에서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입지가 결정돼 지역공동체가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선수촌 건립 부지에 대해 추가 공모 실시 등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시는 최근 선수촌을 신개발 예정지인 첨단3지구를 1순위로 발표했지만, 그동안 광주시가 여러경로를 통해 기존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방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검토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첨단3지구 개발동의안은 광주시의회를 절대 통과할 수 없다”면서 “현재 예정지로 결정된 광산구 송정주공지역과 동구 계림8구역 3075세대에, 추가 1500세대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인 광천동과 운암, 우산지역 등을 차분히 재검토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는 21명의 의원중 첨단 3지구가 지역구인 이은방의원을 제외한 20명 전원이 참여했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수영대회 선수촌 후보지 평가위원회를 열고 북구 첨단 3지구(1500세대), 광산구 송정주공(1251세대), 동구 계림8구역(1824세대) 등 3곳을 각 1~3순위로 발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기본3인분 3+3 = 30,000원	기본4인분 4+4 = 4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국내산갈매기살2+2(480g)	20,000
		왕갈비탕(6,000원) 불백 (6,000원)	

6.25세대는 난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신규창업,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라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아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형 맛충족브랜드 손님들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목회자심리상담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혜택 :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교육, 말씀, 기도, 상담
행복한 목회현장!!

광신대학교 **사모상담전문지도자과정 모집**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사모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혜택 :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심리상담사, 가정사역상담사, 도형상담사 자격 취득!!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제23기 학생모집**

◀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5년 3월 2일 ~ 12월 중순(약 10개월)
- 교육요일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오전 9:00~1:20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2. 최종학급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 원서접수시 전형료 : 10,000원

원서접수 현재 접수중

문의할 곳 062)605-1112, 1023

광신대학교 **여자신학원(여전도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 수업형태 :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 교육일시 : 2015년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cm×4cm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 혜택 :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문의할 곳 062)605-1063, 1112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광신대학교